의료나눔 희망메시지

라파엘나눔재단
Raphael Nanum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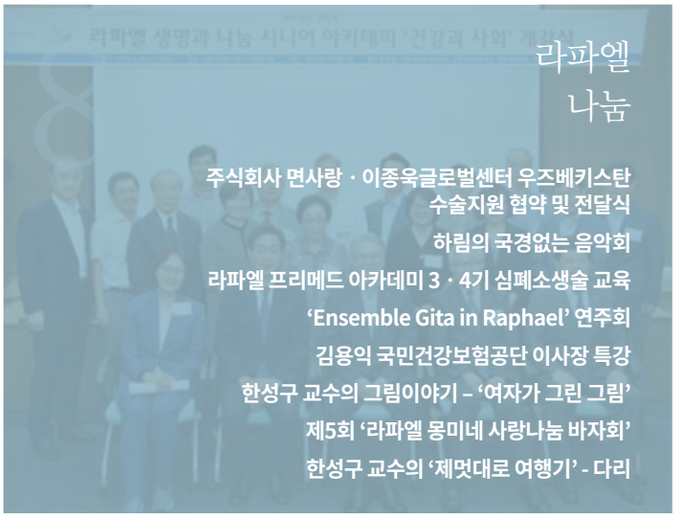
라파엘 소식

2019. 10
No. 264

2 라파엘이 만난 사람
김동연 장관의 '유쾌한 반란'

4 라파엘 클리닉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수상
환자 지원 소식
환우들의 편지
릴레이 봉사자 열전 – 1층 접수팀 까를로스 봉사자

7 라파엘 인터내셔널
2019 필리핀 세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2019 평화 & SDGs 캠페인(세계시민축제)



8 라파엘 나눔
주식회사 면사랑 · 이종욱글로벌센터 우즈베키스탄 수술지원 협약 및 전달식
하림의 국경없는 음악회
라파엘 프리메드 아카데미 3 · 4기 심폐소생술 교육
'Ensemble Gita in Raphael' 연주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강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 '여자가 그린 그림'
제5회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 다리

라파엘 톡 Talk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삶과 놀이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과거의 초라했던 제 자신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은사 신부님들과 어른들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자애로운 아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을 터인데, 늘 지금의 제 관점에서 보잘것없는 학생들을 판단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은, 늘 게으르거나 혹은(게으르지 않다면) 지금 당장의 즐거운 놀이 때문이니, '해야 할 일이 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입니다. '책을 보는 즐거움을 놀이삼아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신변의 일상(청소, 빨래)을 자신의 몸을 가꾸는 재미로 즐기면서 살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쉬는 시간 동안 중립으로 풀린 뇌와 멍한 눈빛으로 인터넷을 바라보는 여유로 성당에 앉아 성체가 모셔진 감실을 바라 볼 수는 없을까?' 등등, 스스로에게 넋두리처럼 던져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는 일이 놀이와 같다면, 삶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엉뚱한 질문 속에 내가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만큼은 놀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결단으로 몸을 움직이는 순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놀이처럼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합쳐지면, 우리는 능동적이 되고, 그렇게 능동적인 사람의 자신감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라파엘 가족 여러분! 피곤한 일주일을 간신히 살아내고서 다시 주일을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지하철에 몸을 싣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분들과 긴 시간을 마주하면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봉사 안에 우리의 놀이와도 같은 즐거움이 담기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과 늘 밀려오는 환우분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우리가 세상에 선물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치료나 약 처방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운 마음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02880)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T. 02-744-7595 F. 02-741-0767 E. raphaelnanum@naver.com nanum.raphael.or.kr 발행인. 김전 편집. 라파엘편집위원회

김동연 前 부총리의 '유쾌한 반란'

9월 22일, 라파엘센터 본관 5층 경당에서 진행된 이번 라파엘 인문학 아카데미 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는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前 부총리는 어려웠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연주제인 '유쾌한 반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첫 번째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반란', 두 번째로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한 '자신에 대한 반란', 마지막으로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 대한 반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은 원래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 중인 보건의료계 봉사자 대학생이 대상이었지만, 의료인 및 일반 봉사자, 지역 주민 등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연을 맡아주신 김동연 부총리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 날 강의내용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뒤집는 '환경에 대한 반란'

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청계천의 무허가 판잣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니 나중에 시에서 철거를 진행했어요. 그 뒤에는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되어 한동안 천막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 탓에 인문학교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업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전 만 열일곱의 나이에 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세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생업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잡지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고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동기를 부여한 책이였죠. 그 때부터 저는 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란'을 꿈꿨고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고시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반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한 '자신에 대한 반란'

더 높은 차원의 반란은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낸 문제를 푸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학기 초, 내면 깊은 곳에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언인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뒤집어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헤어져야 했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 나아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와 인생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 대한 반란'

자신에 대한 반란을 생각한 후에는 '사회에 대한 반란'을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란'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전한 반란이고, 이는 곧 남이 낸 문제, 내가 낸 문제를 넘어서 사회가 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남보다 출발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이력서나 스펙 때문에 속상할 때, 남들보다 출발선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 반란을 일으키십시오. 먼저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후,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게 바로 유쾌한 반란이고, 세상이 유쾌해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CaSA' 김부영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모습, 항상 다음 꿈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부총리님의 모습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CaSA' 박제연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으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선두자의 추진력이 느껴지는 ROSA 강연이었습니다. 혼자 앞서 나아가기 보다 뒤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님의 강의는 다시 한 번 저의 마음가짐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카당' 조성현

김동연 前 부총리님의 강연을 듣고 평소에 당연하게 습관처럼 해오던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다는 고백을 듣고, 마음 한 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려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함으로써 제가 가진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CaSA' 안소희

김동연 前 부총리님의 유쾌한 강의를 통해 제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는 현실이란 틀을 깨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수상

지난 10월 10일, 가톨릭대학교 김수환관에서 진행된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시상식에서 라파엘클리닉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은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故 이원길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받들어 평소에 가톨릭 인본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확산하는데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로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27만 명의 사회적 약자를 치료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라파엘클리닉 김창덕 대표이사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어보겠다는 용기와 열정만을 가지고 가톨릭 의료인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만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를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적은 항상 라파엘클리닉 곁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라파엘클리닉을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라파엘 봉사자들께 수상의 기쁨을 전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

지난 9월 8일과 15일에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가 라파엘센터와 동두천, 천안분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타지에서 더욱 쓸쓸함을 느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명절 문화를 알리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프리메드 어머니회와 분당소망교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송편을 받은 환자 A씨는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환자 지원 소식

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8월	(방글라데시/1982년/남) 내과진료비	101,600원
	(이란/1967년/남) 내과진료비	97,700원
	(필리핀/1976년/남) 내과진료비	97,700원
	소계	297,000원
9월	(중국/1979년/여) 내과진료비	277,000원
	(중국/1950년/여) 내과진료비	97,700원
	(중국/1944년/여) 내과진료비	31,700원
	소계	406,400원
	계	703,400원

환우들의 편지

무하마드
라파엘클리닉은 매우 좋고 직원들이 상냥해요. 저는 요통이 있어서 왔는데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벽히 나았어요. 감사해요.

로라델
저는 항상 저희 이모와 라파엘클리닉에 방문합니다.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찰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무료로 진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기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릴레이 봉사자 열전

1층 접수팀 까를로스 봉사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파나마에서 온 까를로스입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다니고 있고요, 서울대 외국인학생회에서 부회장도 맡고 있어요 ^^ 라파엘클리닉에서는 1층 접수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라파엘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A. 라파엘을 처음 가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입니다. 수업 대신에 한 학기에 2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1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강의실을 벗어나서 수업 대신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점을 얻을 수도 있고, 봉사라는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라파엘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하면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라파엘클리닉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교과목이 끝난 뒤에, 일반봉사자로 전환을 하여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Q. 주변 친구들이 라파엘클리닉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A. 네, 사실 라파엘에서 봉사를 선택하게 된 것도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지금 외국인학생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라파엘에서 진료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직까지는 필수가입이 아니라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라파엘클리닉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유학생 사이에서 라파엘클리닉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Q.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A. 하하(웃음) 네! 제가 속해있는 서울대 외국인학생회에서 후원금을 전달 드리러 왔다가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 학기마다 축제를 진행하는데, 외국인학생회를 하고 있는 몽골,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등 여러 국적의 교우들이 각 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라파엘클리닉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겸 같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친구 키아나도 같이 왔는데, 이 친구도 축제에서 같이 음식을 판매했답니다.

Q.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회는 이번 라파엘클리닉에 후원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봉사나 기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까를로스와 키아나가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일까요?

A. 까를로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서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의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만을 위하기 보다는 남을 도와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간다면 저한테도 그 효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키아나: 봉사란 하는 사람과, 그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의 인생에서 '큰 경험' 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을 도울 수 있어서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듣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성장함을 느낍니다.

Q. 라파엘 봉사자로서 라파엘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일단 라파엘클리닉의 봉사자가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봉사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1층 접수팀의 오후 봉사자는 2~3명뿐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라파엘클리닉이 점점 더 커져서 클리닉에서 종합병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 필리핀 세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필리핀 세부 탈리사이시 마리아수녀회 소년·소녀의 집에서 라파엘인터내셔널의 '2019 필리핀 세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무료 중등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6년제 교육기관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3일동안 소년,소녀의 집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학교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 동아리 '카당'은 손씻기, 양치질 등 기본 위생보건에 대한 내용과 옴 예방, 치료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총 1,892명의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참가자 A씨는 "우리가 하는 봉사는 그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진 같은 것이 아니라, 교육과 소통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세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34명의 봉사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 평화 & SDGs 캠페인 (세계시민축제)

지난 9월 21일, 라파엘인터내셔널이 '2019 평화 & SDGs 세계시민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KOICA에서 평화와 SDG 국제행동주간(9.20.~27.)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ODA(공적개발원조),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은 개발협력존에서 '치아 튼튼,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치위생과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구취 측정, 치아 검진, 양치질 교육 등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활동 사진 전시와 리플렛 배포, 라파엘 몽골리아 봉사단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등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칫솔과 자일리톨 껌을 선물로 배포했습니다.

'2019 평화 & SDGs 세계시민축제' 행사를 도와주신 백석대 치위생과 교수님 및 학생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면사랑·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우즈베키스탄 수술지원 협약 및 전달식

8월 9일, 라파엘나눔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주식회사 면사랑,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와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 및 수술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및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전 라파엘나눔 이사장과 정세장 면사랑 대표이사, 김웅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센터 연구진과 한국 의료진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진과 공동수술을 시행하여 심장병 환아를 치료하고 현지 병원의 심장수술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본 사업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한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현지에 가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면사랑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후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림의 국경없는 음악회

지난 8월 18일, '하림의 국경없는 음악회'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필리핀에서 온 린다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린다 씨는 고혈압으로 라파엘을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며 고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국이 정말 좋아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린다 씨는 Judy boucher의 Can't be with you tonight을 노래한 후, 필리핀에 있는 그리운 자식과 손녀에게 영상편지를 보냈습니다. 씩씩하게 한국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린다 씨, 그녀의 한국생활이 계속 행복하기를 라파엘이 응원하겠습니다.

프리메드 3, 4기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 8월 18일과 25일, 2주에 걸쳐 라파엘센터 5층 경당에서 라파엘 프리메드 아카데미 3기 11명, 4기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라파엘 프리메드 아카데미는 의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진료 현장을 일찍이 경험하게 하고, 라파엘의 나눔 철학을 공유하여 올바른 차세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 교육훈련센터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이론을 들은 후,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용 모형을 활용해 흉부압박, 인공호흡, 기도유지 등을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 A군은 "어느 곳에서나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익힌 심폐소생술을 활용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교육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nsemble Gita in Raphael’ 연주회

지난 8월 25일 ‘앙상블지타’의 공연이 라파엘센터 지하 1층에서 열렸습니다. ‘산보’, ‘여행’ 이라는 이탈리아어 Gita의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앙상블 지타는 다양한 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여행을 함께 가고자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출신의 5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팀입니다.

이날 공연은 알라딘, 라이온킹, 미녀와야수, 인어공주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파엘센터에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앙상블지타에 감사드립니다.

라파엘 시니어 아카데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강

8월 28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병원 CMI 서성환연구홀에서 2019년 2학기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가 ‘건강과 사회’를 주제로 개강했습니다. 안규리 라파엘인터내셔널 이사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과 사회’ 강의를 개설한 배경 및 수업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아카데미의 개강을 축하하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김전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21세기 나눔의 시대에서 의료봉사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라파엘 시니어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찬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축사 이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건의료의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가?’, ‘국가, 의료전문인, 국민들은 왜 서로 불신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6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44-7595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여자가 그린 그림'

9월 9일,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가 '여자가 그린 그림'을 주제로 라파엘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성 화가들이 그렸던 다양한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성화가임을 자각한 최초의 화가인 카타리나 반 헤메센의 자화상을 시작으로 서양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여성화가로 유명한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자화상 등 여러 여성화가들이 자신을 그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이어서 신화 속 인물에게 옷을 입히는 등 신화를 잘 그려서 명성을 얻었던 앙겔리카 카우프만의 '비극과 희극', '아리아드네' 외 여러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리안네 폰 베레프킨의 동료 화가 야울렌스키에 대한 고발을 표현한 작품 및 '랜턴을 든 여인' ,'검은 여인들' 등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승화시킨 작품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류 화가로 손꼽히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을 감상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은 "여성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 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 나온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11월 11일, '석기시대'를 주제로 계속됩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 02-744-7595

제5회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

10월 12일, 라파엘센터에서 열린 '제5회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눔의 손길을 주신 여러 기업과 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이 모여 이번 해에도 다양한 물품 및 기증품으로 행사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층에는 의류 및 잡화와 개인 기증품, 1층은 가공식품, 이분매 수녀님과 함께하는 푸드코트와 해외 현지물품을, 2층은 신부님들의 기증품과 와인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바자 시작과 함께 많은 인원이 몰려 몽골 캐시미어와 식료품 등 일부 품목은 조기 매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가수 하림, 정지찬 씨의 재능기부 공연과 함께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어 바자회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몽골 · 미얀마 · 네팔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성원해 주신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몽골, 미얀마, 네팔의 의료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다리

▲ 성 비트성에서 본 카렐교. 프라하성과 구 시가지를 잇는 석조 다리. 총 16개의 아치로 되어있고 양 옆에는 30점의 성인의 상이 서있다.

프라하……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사진이 되는 곳, 영화 아마데우스를 여기서 찍었다던가. 프라하의 여행자들은 반드시 카렐교를 가게 된다. 이 돌다리는 중세 건축의 걸작인데 다리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다리에서 보는 프라하의 전경 역시 보기가 좋다. 양 옆에는 조각이 늘어서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조각상은 성 네푸묵의 상이다.

네푸묵 성인은 그 당시 보헤미아 네프묵 지역의 존경 받는 요한 신부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의 왕 바츨라프 4세는 의처증이 심했다. 왕비가 고해성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신부님에게 왕비의 비밀을 말하라고 다그쳤단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한 것이니 제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신부님은 말을 하고 침묵했었다. 왕은 신부님께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신부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신부님을 이 다리 위에서 던져버렸다.

▶ 카렐교 위에 있는 성네프묵의 상. 다섯 개의 별이 이 성인의 상징이며 고해성사의 성인이다.

신부님의 시체가 떠오르던 자리에는 다섯 줄기의 빛이 있었다고 해서 이 성인의 상징은 '별 다섯'이다. 이 신부님은 이후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카렐교 네프묵성인 상 밑에는 이를 기린 부조가 있는데 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 때문에 퍽이나 많이 닳았다.

▶ Szymon Czechowicz: 성 네프묵의 순교.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카렐교에서 던져지는 네프묵 신부님.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대가이다.

▲ 카렐교의 성네프묵 상 밑에는 순교모습을 한 부조가 있다. 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때문에 저렇게 반들반들해졌다. 그 왼 편에는 개의 부조가 있는데, 이걸 만지면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행운이 온다고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것도 꼭 만져본다.

이 다리 공사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다리를 건널 발트바(몰다우)강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교각을 세우면 쓸려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단다. 좌절한 건축가의 꿈에 어느 날 하느님이 나타났다고 한다.

'저 다리를 짓게 해주랴?'

'네'

'그럼 나는 그 대가로 저 다리가 완성되면 처음 건너는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한 후에 하느님은 비로소 비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벽돌반죽에 계란을 넣어라……'

비법대로 계란을 넣으니 거짓말같이 교각이 휩쓸려가지 않아서 다리를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계란의 흰자에 있는 아비딘 때문일까? 이제 다리는 완성되었고 내일이면 다리를 개통하는 식을 하게 되었다.

'처음 이 다리를 건너는 생명을 거둔다'는 하느님의 말이 귀에 돌던 건축가는 고심끝에 개를 한 마리 샀다고 한다. 개한테는 미안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건축가에게는 착한 아내가 있었다. 남편이 여러 해 고생하던 다리가 드디어 완공이 되었으니 아내는 기쁘기 한량없었다. 남편을 위해 뭔가 축하해 주고 싶었고 요샛말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생각했었다. 다리 개통 전날 밤에 이 여자는 몰래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다리 반대편에 숨어 있다가 다리가 개통하면 반대편에서 뛰어나와 남편에게 달려와 안아주려고 했었다. 다리가 개통이 되고 건축가가 개를 앞세우고 다리에 오르는 순간, 건축가의 아내는 다리 건너편에서 양 팔을 벌리고 남편을 향해 뛰어나왔단다.

기겁을 한 건축가가 '안돼! 안돼!' 소리치는 그 순간 다리 중간에서 건축가의 아내는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덕분에 개는 살았다. 그런데 진짜 하느님이 그랬을까? 하느님이 그렇게 야박하셨을까? 혹시 악마가 하느님으로 변장한 것은 아닐까?

▶ 톨레도 다리, 험한 산세를 휘돌아 가는 강을 건너는 다리. 스페인의 가톨릭 총본산인 톨레도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재료 운반을 목적으로 다리가 세워졌다.

다리를 짓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묵숨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설도 생겨난다. 다리와 순진한 여자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다리에 얽힌 앙큼한 여자이야기를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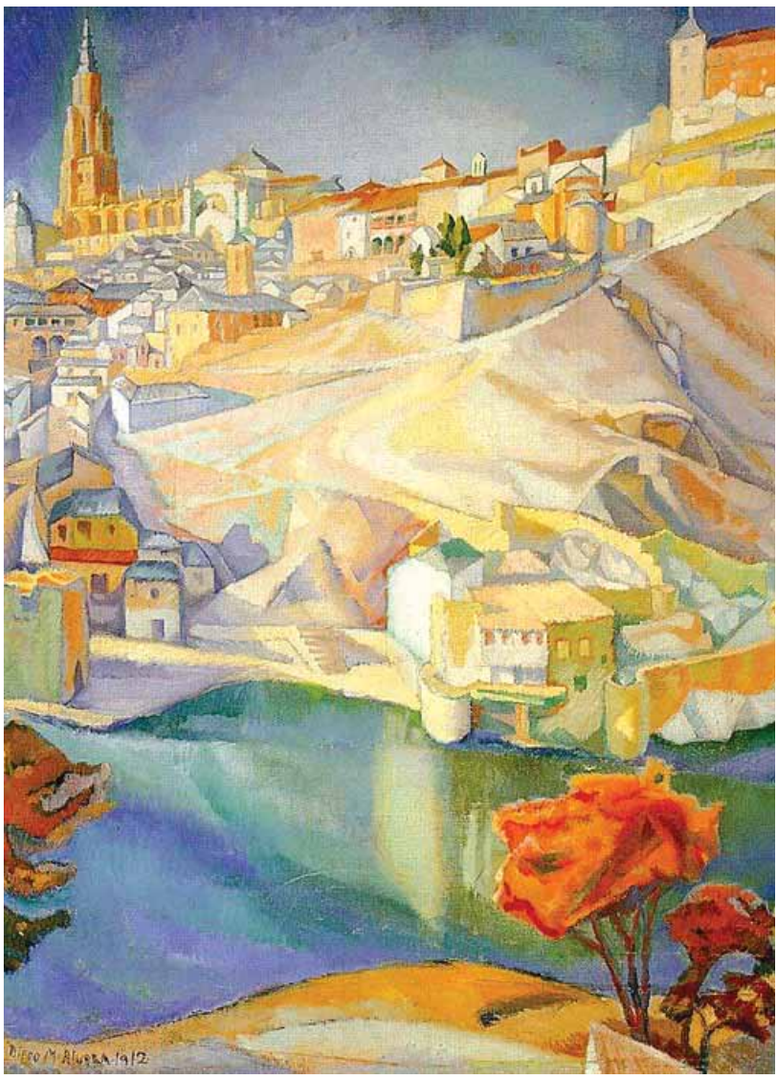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이지만 그 가까이에 톨레도가 있다. 마드리드가 커지기 전에는 톨레도가 스페인의 중심이었고 대단한 톨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톨레도는 지형이 아주 험하고 강이 휘돌아 감는 천혜의 요새이다. 스페인은 오랜 기간 이슬람의 지배에 있다가 다시 기독교의 땅이 되었다.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대성당을 톨레도에 세우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건축자재를 운반하려면 반드시 다리가 필요했었다.

다리를 열심히 세우던 어느 날, 건축가는 갑자기 사색이 된다.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뒤에야 자기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모른 척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다리를 세우자니 그 다리에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기는 순간 다리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고 그렇다고 보강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실직고하고 짓던 다리를 허물고 다시 짓자고 하면 건축가로서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몰골이 수척해지는 건축가에게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 했던 자기의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은 건축가…… 건축가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살려야겠다고 결심을 한다.

이 앙큼한 여자는 깜깜한 밤에 온갖 인화물질을 짓던 다리에 쌓아 놓고 불을 지른다. 화염에 놀라서 뛰어 나온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 다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덧붙여서 '고온에 달궈진 다리는 힘을 받지 못한다'. 결국 짓던 다리는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El Greco: View of Toledo 1599-1600 Metropolitan Museum of Arts, NY. 산세가 험하고 강이 휘돌아 있어서 천혜의 요새이다. 1600년 그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게 초현실적이다.



▶ Diego Rivera: view of Toledo 1912 같은 장소인데 El Greco의 그림과는 느낌이 판이하다. 왼쪽에 톨레도 대성당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알 카싸르가 보인다.

젊은 여행자는 훌륭한 경치, 경이로운 자연에 감동을 많이 받는데 나이가 든 여행자는 인간이 한 일을 보는 것이 점점 재미있게 된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도 에밀레 종의 전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대개는 안타까운 희생이 따른다. 그런데 톨레도 다리이야기는 재화는 낭비되었지만 죽은 사람도 없는 해피 엔딩이라 디즈니의 만화영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 앙큼한 여자 덕분이다.

8월, 9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진료부

가정의학과 강옥림 고윤미 김상혁 김수아 김열자 김정순 김호준 남상호 민경하 민성준 박세미 박 완 박훈기 양예슬 오범조 오윤환 위영진 유동환 이석영 전한조 정부윤 조재연 홍성휘 홍승권 황환식
천안 서윤석(천) 염형택(천) 이철호(천) 임형택(천) 장호선(천)

내과 강유민 강창랑 고현길 김경묵 김상훈 김승정 김은선 김태형 백도명 소수웅 왕준광 윤지영 이강원 이성곤 이수진 이재동 이한아 이호영 이희석 임수빈 임지환 임형선 정유승 조성철 조성태 차란희
동두천 고수령 권소이 김민정 류지영 맹일호 손형은 정상범
천안 김종필 박경식 박진우 손정민 신자운 장호선 주원찬 현경희 염형택 우종웅 정혜원

당뇨클리닉 민경완

마취통증의학과 박윤형 오 율 조성민 최 윤

비뇨의학과 강민용 김정권 남지나 서준교 유상준

산부인과 김리나 김성훈 김은성 김태연 김현영 방승현 이동윤 이미영 이민경 이예지 이정필 임현지 최 진

신경과 모희정 윤병남 이준형 임준성 최석진

신경외과 고영초 김명수 문창택 박성배 이채혁 조성민 한성록

심장클리닉 홍석근

안과 김미금 김미정 김성준 박채린 설보람 유나경 이경호 이용우

영상의학과 김수진 류혜진 박진아 배재석 전선경 조현자 최규성 허보윤

외과 김영석 김현철 이호석 장삼랑 장혜경
천안 김성태 김종현

이비인후과 김만수 석윤식 윤자복

재활의학과 고주영 김선형 김정우 윤재현 이선명 이승환 이용민 이호진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원

정형외과 권지은 김진욱 박건우 송금영 송원태 이승희 이종원 정회숙
천안 채민규 김성태 김동필 임남규

치과 강현규 강현숙 곽난희 김기성 김만진 김선아 김성조 김성준 김세진 김은기 김한별 김훈재 박명섭 박성희 박재홍 백지연 서병무 안교진 오휘성 유태준 유호정 유효정 이동섭 이병화 이성영 이지예 이진경 이현미 이현후 정세용 조흥재 최광수 최한울 하수용 함혜정
동두천 곽기재 김대용 서민성 이광섭 임한기 조승범 차재원
천안 김기환 신동훈 신준희 유용묵 이규태 이용찬 최용석 한대현

피부과 김민수 김종필 노기영 양지훈 이상훈 지민선 최성준

한의과 동두천 권현미 김린애 김민정 김상현 김태희 전호성 황성민

간호사 강인화 강현숙 고성희 고정희 고희연 권순주 김경완 김미정 김순애 김지하 김현진 민송이 박경애 박미숙 박순화 박정화 박혜숙 박희순 배선하 서지예 성정후 성정희 송미라 신영미 신지민 양영실 원혜경 이보미 이영숙 이영희 장선미 장은진 정미순 정승은 조세희 조순화 조영순 표옥경
동두천 김옥희 송순의 유대순 이소명 이지선 주선경 홍민아
천안 김정숙 류주영 송혜미 유주연 이선옥 이은경 이은희 이지영 임영미 조지영

물리치료사 김창인 김종찬 최문석

임상병리사 박혜민 엄미선 임민규

치위생사 김 솔 김은경 김희진 민경은 안금선 이소정 이은경 이지은 정유미 조영복 조영옥
동두천 신은전 조은주
천안 강성임 권성미 권순주 박미정 박소라 박은영 서소영 심예섭 이정식 이진민 이현정 임정희 전유정 최예지

약사 김경자 김다원 김양민 김현숙 류현승 박순연 선민영 손윤아 심명희 심희진 이명락 조현무 함경화 홍성민
동두천 김부권 김준수 박지혜 이신옥 이정옥
천안 김지혜 안인숙 임조영 정재황 최소영 황동숙
숙대약대개국동문 강동희 김동임 김성숙 김은숙 박수경 송유경 양근해 이미선 이영희 최혜경

코디네이터 김희정 백심성 오선주 채혜정

진행부

총괄 고재성 김 전 김창덕 안규리

실행위원 권오상 김미하 김상헌 김재석 김호철 김희수 손영민 송병호 송영민 이호영
천안 김기환 서윤석 이길호 임남규 장호선

의과대학 · 간호대학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어사랑' 강민지 김가연 김민아 김성경 김성령 김 솔 김수정 박재민 박지연 설희원 성유빈 우지원 이수진 이유진 이재희 이지영 이희윤 임승연 정아연 조수영 조혜민 주지원 최민지 최예진 최지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감사' 김민수 김민준 김상범 김상빈 김세진 김유리 김윤섭 김창신 김혜인 김희은 류예찬 문수연 박선주 박수진 이복원 이종호 이현웅 임건우 임지원 정상규 조선영 조수현 조승하 조은솔 주현아 최수련 함승완 허예슬 황혜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카당' 강현우 김상우 김선용 김선욱 김세건 노상은 박주형 서동한 성민영 신원식 신윤식 오병찬 오은빈 원규연 유동욱 윤대준 윤태준 이기옥 이명수 이유진 이인혁 이재성 이진택 정승운 정연준 정현지 최 윤 한정훈 홍지인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강수아 고석한 권현주 권혜란 김 윤 김진경 문나현 박혜빈 석민희 송지은 심규민 심한샘 양수빈 윤현지 이수지 이승은 이재연 이지민 이하늘 이혜지 장소현 한예린 허은비

동두천 남서울대 간호학과 강신영 김예진 박혜빈 배하늘 서유라 송지은 임세빈 정민경 최현아 한서영 한우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카사' 고희원 권준영 권혁찬 김명준 김미송 김민선 김민지 김부영 김상돈 김성래 김윤아 김장우 김지훈 김진우 김태엽 김홍현 노원준 도현식 문현두 박대로 박세용 박세은 박수민 박유진 박은비 박인선 박제연 박하민 방의철 서원영 오유영 윤다빈 윤영성 이상엽 이영주 이은교 이주현 이지형 임채원 전승연 정나은 정동재 조희원 최리예 최지은 함지영 허 강 황윤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카사' 구남훈 권나은 권창범 김민수 김성수 박윤호 박정은 박정호 서혜린 송창열 신민정 양윤정 원성준 윤성준 이나은 이동호 이석우 이지윤 이찬일 이효정 이희수 임서영 임소아 전창범 전현석 전희승 정세용 차채령 최희선 한지숙

서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김규리 김현진 이루리 이민슬 한하은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강다혜 김민경 김우주 김재연 박채연 손가은 송지은 임지우 장하나 전은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경욱 김성욱 김지민 김지민(01) 김현종 손현수 윤혜준 이제형 이지우 이호준 정인지 정인찬 정인한 주병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하예모' 강현선 김선빈 김예찬 김정아 남궁민 남우연 박소정 성지윤 송지현 윤선영 이가은 이가을 최지우 최지은 현승연

천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겨자씨' 강승연 구지원 김기홍 김민석 김민선 김예지 김혜린 남도현 박다례 박상은 박수현 배병훈 신동건 신은정 염규진 윤준서 윤하정 이가원 이기문 이다인 이서영 이아현 이예진 이은경 이지수 이효영 정재헌 황샤론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김미현 강승연 김민지 김예지 박상은 신은정 이예진 이지수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박연경 이수민 이지혜 정선이 조재민 한다혜

동두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준범 이지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중규 박희우 이은호 이장훈

치위생학과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하이진' 강유나 김서영 김세원 김수지 김유나 김지현 박혜준 서희림 석유진 손다은 신예은 윤이빈 윤하영 이신영 전수현 전은지 조영복 조유진 최유빈 최지희 홍정화 홍희수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덴티사랑' 강민지 권수진 박수빈 선우채윤 유승희 이수연 이유빈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SDEC' 강민주 곽현지 김수경 김유진 남지혜 박미선 오혜은 유아름 윤현지 전민지 정인경 최가영 최경현 한수빈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GOCC' 곽민영 곽주은 김유진 김희경 양슬비 장희주 정세아 표선화 한수아

동두천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덴티사랑' 김민조 박나영 송하나 정민주 최유나

천안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곽혜미 권순주 김윤희 백수연 손예진 이소현 정민주 최소연 홍인애

약학대학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약' 구본철 김대연 김민경 김민정 김세진 김영혜 김예린 김종훈 김지선 김지수 김지원 김채린 김현수 남정일 박노현 박상욱 박수연 박수지 박재영 송승한 신수민 신재석 안승찬 안예지 오세은 오진솔 원혁재 유소운 윤예진 이경미 이동헌 이소민 이수빈 이혜린 장다슬 정겨울 정희영 조영제 차하림 최재호 한수경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쿠팜' 구태희 김건우 김도현 박지수 박지원 이경진 정보배 채희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라봉' 강혜림 고원정 구해민 권혜린 김다한 김도혜 김소연 안선정 윤수빈 이새용 이소윤 이수정 이우빈 이지윤 장혜수 최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무궁화 로타렉트' 감다은 강솔지 구회진 구희진 권보민 권유경 김다은 김다희 김예린 김지수 염예솔 이소영 이지연 임수경 임주원 최서아 최연성 한상우 한선정

약학대학교 연합동아리 '커뮤너스' 강원서 김다현 박수빈 박승희 박은희 박찬우 이승정 이유진 전민정 정다연 최운호

천안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훈 김다애 류지현 이민수 이인수

일반봉사자

강다현 강민서 강민창 강보현 강은주 강중현 강호재 공문선 공민우 공연수 곽윤정 국재섭 권나은 권수진 권혁진 김가연 김건우 김규림 김규빈 김규호 김근호 김기환 김나연 김남중 김다미 김도겸 김도영 김도혁 김동완 김동현 김매화 김미경 김민아 김민우 김민창 김범진 김성원 김성은 김성진 김세웅 김세찬 김수민 김수영 김수용 김여진 김예준 김예지 김우재 김유리 김유빈 김윤서 김인선 김재동 김재영 김정하 김정후 김주형 김준호 김중헌 김지희 김진경 김진성 김진일 김하영 김현익 김현준 김효준 나상현 나채옥 맹승현 문서윤 문영주 박경민 박 단 박명진 박민성 박민준 박상철 박상희 박선우 박세란 박세연 박소연 박정규 박종호 박지영 박진영 박찬영 박초예 박현빈 박현희 방정현 배민국 배성하 배승은 배윤우 배은서 배진훈 범태균 서연호 서유락 서효진 성석한 손석교 손영광 손지환 손홍서 송다연 송민규 송민준 송정원 송희승 신수은 신지은 심대현 안시현 어유나 엄지윤 에르덴 바야르 여인열 오경택 오상환 오유진 오지영 원연수 원유석 원종윤 원태연 유성민 유행승 윤강혁 윤미강 윤시연 윤채원 윤혜승 윤희옥 윤희원 이가인 이강민 이건엽 이민경 이민규 이민석 이민학 이병순 이상서 이상원 이선우 이설휘 이성록 이성준 이소망 이수윤 이승현 이시헌 이예령 이용준 이윤의 이윤정 이의석 이재광 이재웅 이정민 이정욱 이준동 이지섭 이창엽 이창학 이태로 이현경 이효은 임도영 임성현 임종석 임준호 임현재 임희연 장준영 전성빈 전혜수 정다연 정동윤 정민주 정수인 정아현 정영지 정우채 정운찬 정유나 정은지 정정현 정정훈 정종현 정진목 정한나 정해윤 조민서 조민재 조석형 조성원 조아현 조유상 조윤영 조재호 조정민 조주현 조준철 주현서 주현우 지선득 최가은 최아인 최윤서 최윤영 최재현 최정훈 최지영 카를로스 카를로스 곤잘레즈 하 림 하조현 한상유 한세현 한승민 한현종 함승아 허준석 홍성민 황수정 황시내 황연웅 황혜령 ERLITA PLATA

동두천 강수아 김강식 김명민 김민철 김보민 김수정 김원희 김유환 나원삼 남동현 문형주 박재열 신재우 신정민 안동수 우희진 이민식 이민주 이세림 이인식 이지유 임미옥 임희경 조성대 최예지 최은영 한사용 홍성환 홍수연 홍순식 황성환

천안 강동규 김황순 김효은 문재화 박향규 신웅섭 이나영 이서영 이서현 이수희 함민지

통역 천안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김다정 김수진 김희진 박민정 이슬아 이예진 정시현 최성아 천안모이세

나눔터 분당소망교회

동두천 안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두천지구 협의회

법률 상담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 봉사 곽순진 권정희 신정균 이경정 최복섭

한글 교육 가톨릭초등학교교사회

환경 대치동성당레지오팀 대치2동성당레지오팀 문정2동성당레지오팀 삼진제약 서울대학교병원 환경팀 성북동성당레지오팀 푸르네정원문화센터

사진촬영 따사모(따뜻한 사진활동가 모임) 미소드림

미사집전 권혁준 나승구 박정우 정태영

전체 진행 강현우 문영주 박제연 백서영 서유락 이가을 장혜숙

2019년 8월 ~ 2019년 9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클리닉

강금례 강봉자 강애란 강윤미 강정희 강홍수 강효경 강희경 강희복 고민관 고선경 고재성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정영진 정옥희 정재식 정정례 정정희 정태윤 정해남 정현규 정혜경
곽순진 권성연 권승화 권오기 권정희 권준수 금신자 기종간 김경길 김경업 김경회 김광두 정희경 정희선 조광희 조문준 조상헌 조수헌 조아현 조이현 조정례 조혜경 조혜숙 주미숙
김광범 김귀자 김기환 김나영 김담희 김대욱 김동률 김두례 김 란 김명석 김명숙 김무겸 주선경 주효미 진순영 진양옥 최금순 최복섭 최선경 최선자 최영희 최 용 최윤라 최인호
김미선 김미승 김미향 김민아 김민정 김병석 김상정 김선덕 김성미 김수암 김수진 김영국 최자영 최정연 최정욱 최 황 추연명 추조자 한경아 한민규 한연주 한정희 한지선 함덕영
김영미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희 김왕율 김용운 김용호 김욱성 김원희 함 숙 허비아 현은영 홍강의 홍경란 홍명숙 홍미섭 홍석란 홍순희 홍인식 홍주의 홍진경
김유경 김유숙 김윤중 김은경 김인혜 김재희 김 전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현 김중곤 홍혜련 황규관 황석근 황세영 황순애 황영순 황자영 황현숙 1004 익 명
김지엽 김진순 김창경 김창덕 김태민 김파라 김학성 김해주 김현철 김혜자 김호철 김홍빈
김희수 김희정 김희중 나명훈 나상호 나승구 남상효 남숙이 노진희 단필권 마대중 마송희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수정 문영주 문종렬 민경완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명희
박문규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연 박소정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점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호 박찬익 박찬일 박태균 박해심 박화숙 박희규 방활란
방효선 배성민 배재문 백가은 백성호 백인하 백재승 변유란 변정익 서영주 서유전 설영기
성낙영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해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저영 송진욱
신동욱 신동학 신미희 신민정 신영실 신인철 신정균 신탁식 심영수 안미혜 안중철 안치석
양계정 양영실 양윤희 양재혁 엄애리 엄영근 엄익부 염기철 염우섭 오명주 오범조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원 오지현 오혜숙 왕해숙 원영신 원종태
위봉애 유경동 유경촌 유병란 유승주 유재호 유혜경 윤규옥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의영
윤장수 윤정묵 윤혜리 이경정 이공필 이기연 이명원 이민경 이민혁 이부영 이상백 이선민
이선주 이성근 이소영 이수정 이숙희 이승연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성 이오례 이용학
이용희 이원평 이유경 이은숙 이은옥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완 이주식 이지안
이지오 이지원 이진석 이차옥 이태림 이헌석 이현주 이홍성 이희우 임태환 장기현 장수홍
장승아 장윤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상우 전석구 전윤희 전정희 정석모 정선우

단체후원
(주)천지산업 (주)피제이전자 OCI주식회사
SNU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서울대외국인학생회)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네이버 해피빈 담우물산
두영컴퍼니 부페아리스 분당소망교회
서울대학교 의대/간호대 가톨릭학생회 의료법인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
주님기쁨의교회 한국쿄와하코기린 한영회계법인
혜화영상의학과

개인약품후원
김현철

단체약품후원
롯데복지재단 주식회사 아이센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정후원
(재)라이나전성기재단 (재)유한재단 (주)하나은행 김남호복지재단
남서울로타리클럽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 부산신항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재단법인 포스코1퍼센트 나눔재단 주식회사면사랑
중앙동성당(라파엘나눔) 포스파워주식회사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수출입은행

라파엘 인터내셔널

강남구 강미령 강민진 강승우 강옥선 강윤하 강임주 강정남 강지원 고광택 고명순 고영초 임보현 임부열 임승옥 임의정 임재천 임정근 임채균 임천규 장보일 장형옥 전가은 전동원
고지연 권도선 권용우 권임희 권혜철 김경덕 김경숙 김공경 김규복 김길원 김길자 김돈규 전란혜 전세은 전수정 전종관 전준수 전화자 정구숙 정규탁 정도교 정도현 정명관 정미경
김명기 김명열 김명희 김문재 김문회 김미금 김미애 김민정 김병규 김봉애 김상호 김선미 정봉태 정산헌 정성진 정우경 정유빈 정의석 정인규 정장환 정재은 정지태 정진택 정해탁
김선주 김성봉 김성용 김성우 김성정 김세경 김소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화 김순녀 김순님 정혜경 조경재 조남문 조대상 조영희 조정숙 조한범 조현예 주덕례 주윤정 차영은 차창일
김순심 김순옥 김연정 김영석 김영순 김영술 김영재 김용준 김우현 김웅한 김유련 김유정 차혜정 채승병 천지영 최공선 최두성 최복현 최순옥 최순철 최영아 최은옥 최인범 최재경
김은주 김인순 김재석 김재우 김 전 김정문 김정미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준 김정환 최진이 최형선 최혜수 하정은 하희옥 한명은 한미옥 한승환 한재일 함방자 허석훈 허연호
김종철 김종현 김준진 김지양 김지현 김지희 김진자 김진철 김춘석 김칠선 김현기 김현숙 홍경애 홍영태 홍윤희 홍혜진 황민주 황보현우 황선문 황주연 황지영 황지희
김현진 김호준 김화경 김효신 김흥년 김희숙 남기미 남점우 노무종 노정우 노준화 노태술
노희양 도희철 라소영 류영선 명현식 문복순 민도연 민찬근 박건태 박광미 박금보래 박기연
박대열 박래연 박명숙 박미선 박미숙 박복순 박성희 박소원 박영인 박영자 박영하 박영화
박영희 박옥희 박장호 박정자 박준오 박해인 박향숙 박현숙 박훈영 방기태 방승웅 방효준
배성희 백수현 백승모 백운철 백해경 변승혜 변윤희 서동익 서승민 서음옥 서정훈 설진선
설진우 손송이 손환철 송영숙 송정희 송준석 송지원 송현숙 신건호 신노미 신승원 신운건
신 철 심재임 심혜정 안규리 안규백 안봉순 안성용 안성훈 안소은 안재기 안재형 안종욱
안종원 안종진 양승희 양원보 엄주영 여상민 오광숙 오문성 오상호 오영진 오종렬 오혁진
오혜경 우연호 원용금 유기임 유동연 유석현 유인화 유재흥 윤두희 윤병재 윤상경 윤영옥
윤이경 윤정호 윤찬송 이경란 이경진 이규연 이대희 이도행 이명준 이문교 이미애 이민정
이병건 이성란 이성민 이순임 이승연 이연희 이영순 이영식 이영일 이옥경 이원제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응훈 이인숙 이일숙 이재룡 이재섭 이재인 이재현 이재호 이정미 이정은
이정인 이정자 이정희 이진경 이진서 이태수 이택하 이하정 이현심 이현종 이흥식 임미정

단체후원
(주)아웃도어파크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유라통상 광명산업(주)
사랑의후원금 씨에스우드(주)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케녹스사운드

지정후원
(재)라파엘나눔 공동모금회-권오준 바보의나눔_이피코리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고소영 김기중 이병진 이정옥 정진환 지혜선

약품후원
사과나무치과병원

라파엘나눔

강건욱 강경임 강경화 강기석 강남순 강민서 강민수 강민정 강부성 강영배 강요한 강은강 윤성자 윤소영 윤영주 윤용현 윤은옥 윤의진 윤이경 윤인숙 윤인자 윤재희 윤종식 윤주빈
강은주 강인숙 강한나 강화자 강효정 강 훈 경희호 고경민 고명찬 고민수 고소현 고원준 윤태로 윤현배 윤혜진 윤희옥 윤희원 은진영 이건열 이경민 이경숙 이경주 이경희 이계선
고준용 고춘영 고 훈 고희순 공문선 공성혜 공인숙 곽수진 곽영자 곽영호 곽용진 곽재복 이광호 이규상 이규희 이기남 이기원 이기혁 이남요 이남현 이누리 이달봉 이달원 이대우
곽주연 곽진영 구서희 구웅서 권병준 권선진 권송택 권승호 권재훈 권준범 권준이 권지형 이동진 이동한 이 란 이명란 이명숙 이명옥 이미라 이미자 이미희 이민경 이민규 이민우
권형주 기현지 김가연 김건우 김경미 김경민 김경삼 김경숙 김경인 김경자 김경화 김광무 이민재 이병호 이부순 이상남 이상미 이상민 이상운 이상은 이석래 이선경 이선재 이선희
김구희 김귀숙 김규림 김규빈 김근호 김기남 김기문 김기풍 김기환 김나나 김나은 김낙현 이성배 이성이 이소영 이수련 이수은 이수자 이승빈 이승철 이승현 이아름 이연옥 이연출
김남미 김남웅 김남호 김다민 김대순 김대용 김덕희 김도원 김동순 김동연 김동엽 김동중 이영순 이영애 이영은 이영인 이영일 이영희 이 옥 이옥준 이용미 이용석 이원경 이원표
김동현 김면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옥 김명웅 김명화 김미정 김민순 김민우 김민정 이유미 이유진 이윤의 이윤지 이윤진 이윤희 이은경 이은빈 이은재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김민지 김민채 김범석 김범진 김병천 김보경 김봉길 김상미 김상범 김상수 김상윤 김상철 이은희 이의석 이인자 이장원 이재선 이재원 이재진 이재희 이정민 이정아 이정윤 이정은
김상희 김서현 김석봉 김선경 김선미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현 김성환 김세웅 이정철 이정헌 이정희 이제현 이종근 이종림 이종만 이종민 이종철 이종현 이종화 이주영
김세진 김소정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주 김수지 김순녀 김순옥 김승철 이준한 이준행 이지민 이지섭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태 이 찬 이찬휘 이찬희 이창우
김시현 김양현 김연수 김영기 김영남 김영수 김영아 김영자 김영재 김영훈 김영희 김예준 이창학 이철재 이충식 이태경 이태규 이태식 이한규 이한신 이향숙 이현경 이현국 이현숙
김옥수 김완수 김요한 김용건 김용경 김용수 김우주 김원호 김유림 김유영 김유정 김유진 이현심 이현재 이형란 이형전 이혜경 이혜숙 이호열 이호영 이호준 이화자 이효정 이희석
김유환 김윤동 김윤상 김윤서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옥 김은정 임동우 임명규 임봉선 임안식 임연희 임원명 임인숙 임재우 임정선 임정숙 임준경 임준호
김은희 김을수 김인선 김자경 김자은 김장성 김재하 김재현 김 전 김정곤 김정림 김정미 임지영 임진웅 임진화 임한규 임혜규 임혜원 장경복 장경진 장문수 장병화 장비호 장세선
김정순 김정연 김정우 김정일 김정자 김정제 김정호 김종엽 김종원 김종인 김종필 김종호 장수영 장영우 장영철 장옥주 장윤재 장재욱 장정민 장정혜 장현민 장혜숙 전경선 전미경
김종흔 김주신 김주영 김주희 김 준 김준민 김준호 김지영 김지하 김지현 김지호 김지홍 전병선 전승호 전양미 전은주 전혜정 전희중 정규현 정 남 정다빈 정달근 정명화 정민주
김지희 김진구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창묵 김채영 김청덕 김추양 정상식 정상화 정선민 정세장 정소영 정순균 정승이 정아현 정연수 정연호 정영근 정영자
김태열 김태옥 김태원 김태현 김태형 김태희 김필성 김하석 김학준 김한성 김한수 김현옥 정영희 정왕진 정우경 정우영 정원제 정은지 정재경 정재상 정정희 정제설 정준기 정준호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화 김형구 김형국 김형수 김형준 김형하 김혜경 김혜리 김혜선 정지원 정지은 정진목 정혜경 정혜영 정희영 정희주 정희창 조덕관 조미진 조민우 조민주
김혜숙 김혜연 김호정 김홍자 김화자 김화정 김효준 나동규 나유미 나종옥 남계영 남맹동 조범철 조부귀 조서현 조 석 조 선 조성범 조성연 조성채 조성희 조수영 조순례 조숭희
남상범 남숙희 남영우 남윤자 남인옥 노경태 노민수 노영자 노유진 노정숙 노주환 노준수 조승희 조영숙 조영순 조윤서 조윤성 조은지 조재영 조재호 조주연 조준철 조춘식 조춘제
노진영 도시현 라성은 류국영 류수영 류은주 류현주 맹승현 모희정 문경원 문상원 문선진 주동우 주성원 주세운 주재범 주재원 지완일 지정임 지정훈 진영옥 진영진 진혜영 차상민
문승자 문지환 문현일 민경율 민진호 박경봉 박경빈 박경심 박경자 박경희 박귀애 박금보래 차서우 채영규 채윤서 채창규 천정은 최내리 최동일 최명윤 최미경 최미정 최범규 최병선
박명규 박명순 박미경 박민성 박민지 박민혜 박상섭 박상진 박상철 박서영 박선옥 박선우 최서연 최선애 최수미 최수안 최수연 최숙자 최아인 최연옥 최영자 최영화 최영희 최용민
박선은 박성준 박세근 박소연 박수연 박수열 박수준 박숙녀 박순연 박순영 박순희 박시형 최원남 최원의 최원일 최원호 최윤서 최윤영 최윤욱 최은영 최 인 최인희 최재원 최재현
박신안 박아랑 박영규 박영기 박영수 박영식 박영준 박영환 박영희 박옥희 박외숙 박용식 최정규 최정은 최정훈 최지영 최지호 최지훈 최창환 최치영 최형인 최희자 추성옥 추호정
박우곤 박우준 박웅양 박윤주 박은경 박은희 박장환 박점례 박정미 박정민 박정안 박정우 하태훈 하희자 한경욱 한경희 한만오 한민정 한사용 한상규 한상옥 한세현 한승우 한영숙
박정의 박정임 박정희 박종식 박종택 박종환 박종훈 박준범 박준형 박중구 박지영 박찬익 한영주 한영춘 한유경 한은경 한종수 한종표 한현옥 함경화 허광래 허석훈 허성오 허 옥
박창배 박채린 박태섭 박해경 박해주 박행자 박현빈 박현숙 박형은 박혜경 박효주 반효정 허 진 허 황 현선희 현해균 홍경자 홍기순 홍성민 홍성혜 홍성화 홍순경 홍승노 홍영의
방경숙 방서인 방영미 방영식 방유진 방준혁 방혜란 배민지 배상미 배정현 배해경 백문영 홍옥표 홍윤태 홍장희 홍재모 홍지만 홍창기 황경하 황등영 황명하 황보명 황성숙 황순정
백미숙 백미영 백성현 백숙현 백심성 백은영 백은옥 백종옥 백진호 백향덕 백효정 변성연 황승용 황연숙 황응수 황인규 황재숙 황지현 황지혜 황태숙 황환민 황희경 마셀 슈미트
변옥순 변지오 부종욱 사공정숙 서경산 서기원 서대헌 서동원 서동진 서범석 서수길 서영민 KIMMINHAMINA PIAO ZHENJI ZACHARY M HAHN
서은영 서자경 서재일 서전영 서정범 서진옥 서진활 서창호 서혜명 서호경 석정순 선효숙
설수경 성경숙 성기택 성기훈 성석환 성숙환 성제경 성철제 소영섭 손금임 손매자 손병두
손성세 손은정 손정수 손지환 손 희 송경희 송민겸 송민종 송상우 송석길 송영욱 송영주
송정섭 송지연 신덕순 신동미 신동원 신명원 신선희 신소라 신윤섭 신은영 신재연 신정경
신정옥 신주아 신지영 신진숙 신창규 신혜미 신혜숙 심대현 심정연 심희진 안규리 안미규
안성자 안성준 안순길 안영복 안원모 안유미 안재덕 안정원 안현배 안호선 안홍율 양병국
양세영 양승원 양 영 양영모 양영이 양영현 양태종 양희동 양희수 엄기준 엄소현 엄익균
엄지윤 여수진 여의주 여인열 염정인 오경택 오규석 오덕자 오명균 오명희 오민석 오서희
오성자 오수경 오순영 오원희 오정례 오혜원 오희숙 우수진 우제명 원영수 원재학 원종윤
위민이 위지범 유귀임 유달라 유병숙 유병욱 유성자 유영주 유유희 유은아 유은희 유재현
유정광 유지순 유지형 유창우 유효선 유희숙 윤강혁 윤광준 윤미선 윤미희 윤선희 윤성노

단체후원
(주)두리디자인 (주)보명엔터 (주)삼명테크 (주)제이영에셋 (주)하트스캔 동아화성(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사무소 삼남석유(주) 선부한빛의원 세진화성(주)
인사이트메디컬(주) 주식회사면사랑 천주교 서울대교구 갈현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창4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남동성당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와하코기린 해방촌성당 빈첸시오회
현대기전(주)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라파엘나눔 사무국(02-744-75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